

- 본문 : 에베소서 3장 14~21절
- 제목 :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4.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 마음의 문을 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인체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실조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정박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을 그들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당신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에 대해 사랑방에 속한 영가족들에게 살짝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가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간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3:18~19)
2.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 “모든 성도와 함께”(18a)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주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에베소서 1:10 ; 2:13~14 ; 4:13 ; 5:18 ; 5:22~6:9)
3.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3:18b, 19a)
4.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3:16, 갈라디아서 2:20)
5.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랑을 교회 안팎에서 깨달은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함께 엮으려 고통과 고난을 나눌 때에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사랑방이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것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기도와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회는 “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밖”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도약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속한 사랑방은 교회의 비전을 목상할 때 한 방향으로 기도와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영가족들의 결단을 나누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2.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 교회 안으로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3. 송원교회에게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하실 때 ‘열방의 다음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